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Frontier

KAIST Management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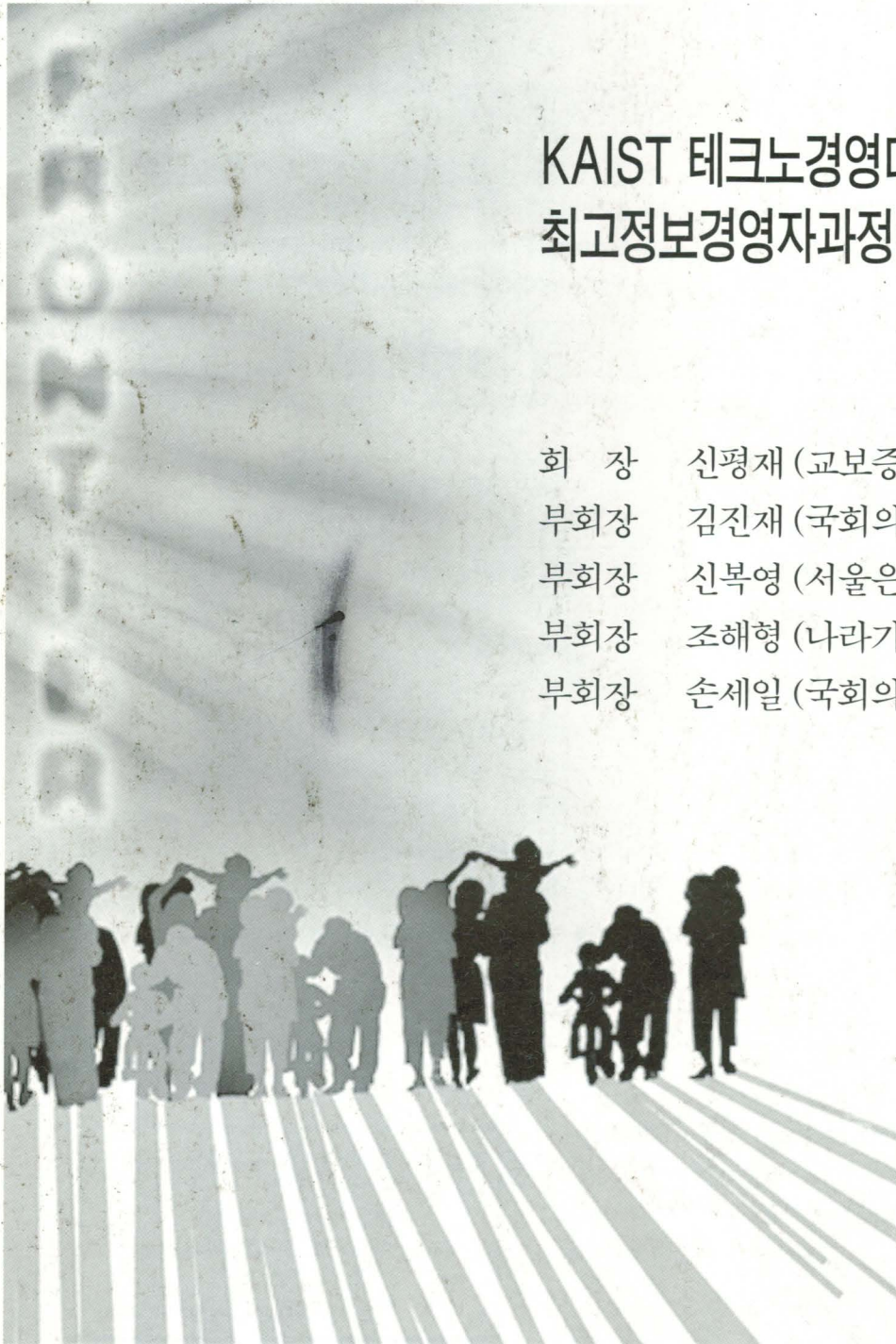
CONTENTS

2 창간사 안병훈 대학원장	6~7 Top News	16 동문기업체 탐방 (주)아이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계간지 「Frontier」 1997 AUTUMN Vol.1 No.1
3~5 축하의 글 윤덕용 원장 중앙일보 사장 SK Telecom 부회장 Stanford University Univ. of Illinois Harvard University	8~9 테크노경영대학원 소개	17 테크노경영관 특집	발행일 1997년 10월 1일
	10~11 교수 칼럼 김영배 교수	18 MBA 해외 연수기	발행인 안병훈
	12~14 Management Tips 전자상거래 이재규 교수 벤처 비즈니스 배종태 교수 금융공학 김인준 교수	19 연구실 소개	편집인 김영걸
	15 인터넷 Hot Business Site	20~21 KGSM 가족	발행처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22 AIM 소식	TEL 02) 958-3246
		23 알림란	FAX 02) 958-3010
			URL http://kgsm.kaist.ac.kr
			디자인 나눔기획 02) 275-0150

테크노경영대학원의 『Frontier』 지 창간을 축하합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정보경영자과정(AIM) 총 동창회

회 장	신평재 (교보증권 회장)
부회장	김진재 (국회의원)
부회장	신복영 (서울은행장)
부회장	조해형 (나라기획 회장)
부회장	손세일 (국회의원)



Advanced Information Management

21세기를 선도할 시각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인력은 과거와는 달리 총론과 각론을 함께 보는 시각을 갖추어야만 한다. 전략차원과 관리차원을 2분법으로 보던 경영(management)시대는 이미 지나고, 전천후 능력을 요구하는 기업가(entrepreneurial leadership)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특히 사이버시대를 열어 가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과학기술을 모태로 한 벤처산업의 화려한 등장은 기술과 경영의 접목을 기치로 내걸고 96년 3월 출범한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앞날을 매우 밝게 비추주고 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그 동안 국내뿐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초창기에 있는 이러한 경영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실천해 나가느라 그 동안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다.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기존의 석. 박사과정 교육과 국제수준의 연구활동은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이와 더불어 21세기가 요구하는 기술경영, 경영정보, 통신경영/정책, 금융공학 및 환경경영/정책분야에 MBA과정을 설치하였고, 산업계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는 최고정보경영자과정(AIM), 통신복합학문과정(ITSP)을 설치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노력과 헌신을 쏟아 부었다고 하겠다.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이제 외국의 많은 대학들도 관심을 갖고 협력사업을 제의해오고 있고, 국내의 경영대학들에서도 유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등 내외부적으로 높은 평가와 관심을 받고 있어, 그 동안의 노고가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본다. KAIST의 선도적 역할이 경영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테크노경영대학원은 KAIST의 장기적인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에 있어서도 선도적이고 시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와 격려는 선경그룹의 120억 원 산학협력기금으로 이어졌고, 서울캠퍼스의 1,2호관을 중심으로 21세기 경영교육에 걸맞은 건물과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대보수공사도 정부의 부분적인 지원 하에 힘차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창간되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소식지 Frontier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눈부신 발전은 물론 앞으로의 모습과 청사진을 대학원 및 KAIST 식구들, 동문들, 산업계 및 공공부분, 또한 본 대학원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Frontier는 일방적 홍보물 차원에서 벗어나,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쏟아지는 정보홍수 속에서 핵심적이고 불변의 패러다임들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KAIST다운 값진 글들도 실을 예정이다. 물론 인터넷 등 새로운 사회현상과 연계하여 독자들에게 유익한 경영관련 기획들도 돋보일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노력은 추후 한국의 Harvard Business Review를 기치로 걸고 탄생될 자매지 KAIST Management Review에서 본격화 될 것이다.

계간지 성격의 본 간행물을 여러 독자 앞에 주기적으로 내어놓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김 영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편집위원회 교수님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기자 여러분들, 홍보 기획에 여념 없는 행정팀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수고에도 미리 격려와 박수를 드린다. 대학원장도 기회가 닿는 대로 대학원의 장기발전전략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갈 생각이다. KAIST 가족 및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장
안 병 훈

Message of Congratulation

KAIST 원장
윤 덕 용

KAIST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KAIST에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설치된 것이 벌써 1년반이나 지났다는 것이 실감이 안 갑니다. 길다면 길지만, 새로운 학부나 대학원이 탄생하여 걸음마를 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반하여, 테크노경영대학원은 1년반 사이에 걸음마를 넘어서서 달리기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병훈 대학원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과 직원, 그리고 열악한 주변 여건에서 잘 참아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단합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솔직히 설립 초기에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성공 여부에 의문을 갖은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1년반 동안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또 멀리서 지켜본 원장으로서, 이제는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정보기술의 발전, 벤처산업의 대두, 새로운 금융산업에 대한 사회적 욕구 등은 바로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추구하고 있는 기술과 경영의 접목에 그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Top 10수준을 지향하는 KAIST가 새로운 탈바꿈을 하기 위해, 우선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재정 자립도 향상, 자율적 책임경영 등의 어려운 숙제를 시범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감은 있지만, 그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고, 결국 KAIST의 다른 학부들도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경험과 노력을 귀감으로 삼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울캠퍼스의 모습도 내년 초부터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원장으로서도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소식지 Frontier의 창간은 KAIST도 이제 앉아서 기다리기 보다는 발 벗고 나서는 새로운 조직 패러다임을 천명하여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에 걸맞은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 봅니다. Frontier가 겉모습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값진 글들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테크노경영대학원, 나아가서는 우리 KAIST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창간 준비를 위해 힘써 주신 관계 교직원, 학생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소식지를 접하는 산업계, 정부 및 우리 동문과 식구 여러분들도 서로를 알리고, 토론하는 교제의 장으로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Message of Congratulation

기술을 아는 경영자를 길러내기 바랍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소식지인 Frontier지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기업경영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현재는 물론 21세기에도 여전히 국내외에서 주력산업의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전자분야에서는 기술이 노동력이나 자본을 앞서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KAIST가 국내 처음으로 테크노경영대학원을 설립, 기술을 아는 경영자를 길러내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미 테크노경영대학원 같은 학제를 편성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원으로 미국에서 수위를 다투는 Harvard나 MIT 역시 기존의 학과목 등을 전면 개편 기술에 큰 비중을

두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물론 경영자가 공학자나 엔지니어만큼 특정 기술에 정통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 기술의 탄생 배경과 산업현장에서의 응용을 지켜보면 여기에도 어떤 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경영자들이 바로 이같은 추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경영자들이 세계의 기술조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탁월한 강사진을 초빙, 활용하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Frontier지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중앙일보 사장

홍 석 현

세계 일류수준의 경영대학원으로 발전하길...



SK Telecom 부회장
손 길 승

최근 기업경영은 정보화의 진전으로 큰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경영역량뿐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요구하는 새로운 경영이념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 기업경쟁은 기술을 아는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KAIST의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설립되어 정보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경영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차별화된 경영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기업경영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더욱 치열해질 국제 경쟁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Globalization의 거대한 물결

속에 있으며 우리 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예외될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이론과 실제의 균형 있는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특유의 한국식 경영기법을 세계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SK Telecom은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설립 초기부터 실질적인 산학협동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ITSP(Interdisciplinary Telecommunications Studies Program)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이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해 차세대 경영 및 정책지도자를 양성하는 세계 일류수준의 경영대학원으로 발전하길 기원하며 Frontier지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Message of Congratulation

Congratulatory Remarks from Stanford University

I congratulate the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for leadership as you introduce the Frontier magazine. Your school has been very innovative in offering specialized MBA programs, including the Techno-MBA, MIS-MBA, Telecom-MBA, Financial Engineering MBA, and Green-MBA. The "Frontier" magazine promises to be another such innovative step. I believe that your programs and your new publication will serve Korea, its industries, and its students well. Congratulations.



James L. Sweeney
Chairman, Department of Engineering-
Economic Systems and Operations
Research
Stanford
University



Congratulatory Remarks from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On behalf of the College of Commerc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on the creation of the "Frontier: KAIST Management Update". KAIST is a world-class institution and I am sure that the Frontier magazine will assist KAIST's educational initiatives.

The College is pleased to be a partner of KAIST. I am confident that there will be many opportunities for KAIST and the University of Illinois to cooperate in achieving expanding educational goals. Best wishes and congratulations again.

Charles M. Linke
Associate Dean for Graduate Studies
College of Commerce and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Congratulatory Remarks from Harvard University

Changes in Technology, ideology and values are transforming markets and societies around the world. We are still in the early adolescent phase of the revolution that will challenge business and government for the generation to come. The 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and its new programs are suited in concept, time and location to support and enjoy this revolution. As a friend and colleague, I look forward to your success.

Regards,
Bill



William W. HOGAN
Thornton Bradshaw Professor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Harvard University



SK Telecom과 산학협동 협정체결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발전기금으로 120억 기증



SK Telecom(주)(대표이사/부회장: 손길승)은 테크노경영대학원과의 산학협동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120억원을 기증하

기로 하고, '97년 1월 17일 11시에 산학협동 협정식을 서울캠퍼스에서 가졌다. 이번 기증은 정보통신 등 21세기 국가 주요전략

분야를 이끌어 나갈 경영 및 정책 전문인력육성과 기술개발력을 함께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SK Telecom이 제공한 발전기금 120억원은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석좌/초빙교수기금, 연구개발기금, 장학기금, 교육연구시설 개보수비(2호관)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96년 3월부터 SK Telecom과 위탁교육협정을 맺고, SK Telecom의 임원 및 중견관리

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영능력 개발을 목표로 통신복합학문과정(ITSP)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경영/정책전공 (Green-MBA) 98학년도부터 신규 개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다섯 번째 MBA 프로그램으로

테크노경영대학원 Green-MBA 설립추진팀 (전공책임교수: 안 병훈)에서는 지난 9월 8일 (월) 예일대학교 School of Forestr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의 Thomas Graedel 교수를 초청하여 산업생태학(Industrial Ecology)과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Design for Environment: DFE)에 관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98학년도부터 환경경영/정책전공 MBA과정을 개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환경경영 세미나와 Green-MBA 소개 행사에는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교 등

에서 80여명의 환경관련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많은 참석자들이 강연이 환경경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고, Green-MBA 전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Green-MBA 프로그램은 21세기를 대비하여 기업 경영의 녹색화를 주도할 리더를 양성하는 2년제 석사과정이며,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환경경영전략, 환경정책, 환경관리기법 등을 교육하여 환경경영 실무전문가를 양성한다. 설립추진팀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승규교수는 많은 기업

에서 Green-MBA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파견할 인력에 부족을 느끼는 경우는 기업이 교육경비를 부담하여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FBL(Future Business Leaders)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를 통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연락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Green-MBA 설립추진팀 노 영아 (전화: 958-3642)

Innovative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상 수상

지능정보시스템 연구실 이재규 교수팀

테크노경영대학원 지능정보시스템 연구실의 연구팀(지도교수 이재규, 이경전박사, 김현우박사과정, 박승진 석사과정)이 개발한 건설공정계획 자동생성 전문가시스템이 AAAI(American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수여하는

IAAI-97(Innovative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상을 1997년 7월 27일 수상하였다. 이로써 95년 대우조선 일정계획시스템(DAS)연구결과에 대한 IAAI-95 수상에 이어 KAIST에서 IAAI상을 두번째 수상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사례기반 접근법을 현장적용 가능한 대형규모에 적용한 선도적 연구로 인식되어 건설업계의 적용효과와 함께 인공지능 응용의 지평을 넓혀준 기여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 의사결정 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정보시스템 관리연구실 김영걸교수
박사과정 이재남군

지난 7월 20-2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던 제 4차 국제 의사결정 학회에서 테크노경영대학원 정보시스템 관리연구실의 김영걸교수와 박사과정 이재남군이 공저한 논문-“정보시스템 외주에 있어서 파트너쉽의 중요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MIS분야 최우수논문상 및 학술대회 전체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25개 국에서 참가한 528명의 학자들이 14개의 경영학 제반분야에 걸쳐 25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국제 의사결정 학회는 2년만에 한번씩 열리며, MIS, 생산관리, 회계, 기술관리 등 경영전반의 의사결정에 관한 학회이다.



인공지능 주식 예측 프로그램개발

회계, 재무정보시스템 연구실 한인구교수팀

인공지능을 이용,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국내 첫 개발됐다. 테크노경영대학원 회계, 재무정보시스템연구실(지도교수 한인구)은 5월24일 (주)동원증권과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예측력을 강화시킨 주가지수 예측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통계적 기법과 인공지능기법을 통합시

켜,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등으로 모형을 구축, 주식매도 및 매수시점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이 프로그램은 각 기간별로 통계기법, 인공지능기법, 인공지능경망, 사례기반추론, 유전자알고리즘, 카오스이론 등을 기반으로 1일 후, 1주일 후, 1개월 후, 3개월 후의 주가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이 프로그램의 종합주가지수의 변동방향에 대한 예측결과와 실제종합지수 적중률이 65-70% 수준에 달했으며, 특히 주가지수가 15-20% 정도 하락한 지난 9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실제 주식시장에 적용하여 가상투자를 실시한 결과 약 70%에 이르는 적중률과 21-23%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전했다.

21세기 초일류 경영대학원이 되고자 하는 테크노경영대학원 가족들

황은정 MIS/통신 MBA 전공사무실

1997년 3월, 첫 직장에 대한 기대감과 떨림을 안고 KAIST의 정문을 조심스레 들어섰다. 높다랗게 뻗어있는 계단을 하나 하나 오르기 시작하는데, 차가운 바람, 앙상한 나뭇가지들, 인적 없는 한가한 거리, 낡은 건물들- 왠지 낯설고 조용했다. 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며 무슨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테크노경영대학원에 몸을 싣고 일한지 6개월, 처음 느꼈던 한적함과 조용함은 찾아볼 수 없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정말 분주하다. 지난 3월 12일 설립 1주년을 맞이한 후로 내, 외부적으로 수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외적으로는 국내 최고의 첨단 경영관으로 탄생할 2호관 증개축 공사, 내적으로는 환경경영/정책전공의 신설, 교과목 개편, 신입생 모집, Internet Homepage 구성, Newsletter발간 등의 일들이 진행 중에 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21세기 기술 무한 경쟁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내용과 방식의

경영학 교육을 통해 “기술을 아는 경영인, 경영을 아는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KAIST 홍릉캠퍼스에 설립되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연구 중심의 경영공학 전공과 실무형 복합 전문교육을 시행하는 MBA과정, 각 전공 분야별로 사회적 수요에 맞게 중·단기적으로 운영하는 비학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공학전공은 경영 분야의 학문적 탁월성을 강조하는 석, 박사 과정으로 심도 있는 전문지식과 다양한 방법론을 집중 교육하며, 기술 및 환경경영, 정보 및 통신경영, 경영관리, 국제경영 및 통상, 산업경제 및 정책 등의 다섯 가지 집중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산업체의 중견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MBA과정은 과학적 사고와 이론체계의 틀위에서 실제 경영 사례들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기술경영전공(Techno-MBA), 경영정보전공(MIS-MBA), 통신경영/정책전공

(Telecom-MBA), 금융공학전공(FE-MBA)과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 98년부터는 새로이 환경경영/정책전공(Green-MBA)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험의 축적을 위해 매년 각 MBA전공에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금융공학 1기생은 지난 봄학기에 일리노이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으로 연수를 다녀왔고, 기술경영전공2기생과 통신경영/정책전공 2기생은 여름학기 렌슬레어 폴리테크닉 대학(RPD)과 카네기 멜론 대학(CMU)으로 다녀왔다.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또한 세계적인 시야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기회가 닿는대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외 인사들을 초빙하여 특별강좌를 개설한다. 97년 여름학기에는 경영정보전공에서 Efraim Turban교수를 초청하여 5주에 걸쳐 인터넷 응용경영강좌를 개설했다. 또한, 통신경영/정책전공에서는 미국 Iowa대학의 통신전문가인 박준성 교수를 초청하여 기업통신강좌를 성황리에 개설했다.

비학위 과정으로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경영기법 및 정보 기술을 집중 교육하는 최고 정보경영자과정(AIM)이 있다. 개설 후 3년만에 명실공히 국내 정상의 최고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는 AIM과정은 매학기 40명의 최고경영자들을 교육시키며, 삼성그룹 회장/사장단 포함하여 현재



까지 총 300여명의 재계 지도자들을 KAIST 동문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SK Telecom의 임원 및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신복합학문과정(ITSP)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일년에 4기, 기별 30여명이 입학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학술 활동과 연구 실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96년 3월 개원후 일년간 교수 23명이 해외논문 63편을 포함한 총 133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여 교수 일인당 5.8편을 발표했으며, 국내외 주요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 (이희석교수-96년 한국 경영정보학회, 이재규교수-97년 한국 경영정보학회, 97년 하와이 시스템과학 국제학술대회, 김영결교수-97년 국제 의사결정 학술대회)을 휩쓸어 최고의 연구수준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지능정보시스템 연구실(지도교수 이재규)의 건설공정 계획 자동 생성 전문가 시스템이 AAAI(American Associa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수여하는 IAAI-97(Innovative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상을 수상하여 이론을 넘어서 현실적용이 가능한 연구수행에 있어서도 선도적 위치를 인정받았다.

교육 및 연구활동 이외에도, 학생들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테크노경영대학원은 다양한 주제의 초청 세미나를 매 학기 주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실리콘밸리 Diamond



Multimedia Systems, Inc.의 이종문 회장을 모시고 "Reward of Horror: Not only Excellent but Exciting Company" (공포의 보수: 초우량을 넘어선 고객을 흥분시킬 수 있는 벤처기업)이란 주제로 초청 강연의 시간을 마련했다.

시작인 만큼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 원내 전자게시판을 통해 설새없이 들려오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들. 이것이야말로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원천이다.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수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이 기다리고 있을 머나먼 비행길을 거침없이 떠나는 철새들처럼, 21세기 초일류 경영대학원이 되고자 하는 테크노경영대학원 가족들의 날개짓은 신중하면서도 힘차기만 하다. ◆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세계적인 시야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기회가 닿는대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외 인사들을 초빙하여
특별강좌를 개설한다.
97년 여름학기에는 경영정보전공에서
Efraim Turban교수를 초청하여
5주에 걸쳐 인터넷 응용경영강좌를
개설했다.

혁신적 조직문화

김영배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조직문화는
그 자체의 관성이 대단해서
여간한 노력으로는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외부 경쟁이나
압력에 의해 할 수 없이 바뀌는 지
아니면 외부 환경 변화가 심각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바꿀 것인지는
그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최근 우리 나라 기업들이 절실하게 현실로 다가오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세계 초우량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에 없이 과감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30년간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선진국의 성숙기술을 도입하여 값싼 제품의 대량생산과 대량판매를 통해 국제경쟁에서 원가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금의 상승과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더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의 원가우위 전략이 효과적일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우리기업의 경영혁신이란 과거의 성공신화를 가져온 효율위주의 경영관행과 조직문화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비전과 차별화 전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조직문화를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혁신적 조직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의 모험(risk taking)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것이다. 효율적인 조직에서는 현재 맡고있는 업무를 아무 실수 없이 보다 능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혁신적인 조직에서는 현상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고 실패를 하더라도 현재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접근방법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onda 기연에서는 매년 연말 파티에서 가장 많은 실패를 한 사람에게 샴페인을 터뜨려 줌으로써 실패를 장려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혁신적 조직문화의 두 번째 특징은 구성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불필요한 규정이나 규칙 등 관료적 간섭

이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성 하에서 구성원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창의적 접근방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3M의 "15% rule"은 종업원들이 자기업무시간의 15%를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여 창의성을 고취시키고 있다.

혁신적인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창의적 긴장감(creative tension)이 넘친다는 것이다. 초우량 기업을 연구한 Peters와 Waterman은 최고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신념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다. Honda사의 경우 구성원들에게 일부러 강한 위기의식(이를 節目이라 부름)을 불어넣음으로써 정제하려 하는 조직에 혁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을 개발할 때 개발요원들을 모두 이층 지붕 위에 올려놓고 내려오는 사다리를 치운 후 뛰어 내릴 것을 요구하는 데 이것도 모자라서 1층에 일부러 불을 질러 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감으로써 개발요원들이 자기 초월적인 경쟁의식과 벼랑 끝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개인보다는 팀 정신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물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개인의 탁월한 자발적 발상에 의해 많이 제안될 수 있으나 최근의 기술개발이나 혁신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관점들의 중첩과 통합이 요구되는 추세이다. 뛰어난 한 사람의 천재



성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혁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역할의 분담이 필수적이다. 신제품 개발의 경우 설계, 기술, 생산, 영업, 구매, 상품기획 등 여러 기능 분야의 전문가가 한 팀이 되어 서로 다른 관점과 전문능력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최고의 제품을 개발 할 수 있는 팀워크가 중요하다.

창조적 조직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개방적인 문화라는 것이다. 조직내의 개인간, 부서간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뿐 만 아니라 조직 외부의 여러 정보원천이나 고객, 공급업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소위 말하는 NIH (Not-

Invented-Here) 증후군으로 인한 고립현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Johnson & Johnson사는 개인간, 부서간, 분야간 입장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창의적 갈등”이라 부르고 이러한 경우를 혁신의 좋은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Intel사 역시 “건설적인 대결”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직급이나 부서 차이에 관계없이 개선하고 토론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발상을 도출하고 있다.

여섯 번째의 특징은 고객 지향적 문화이다.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고객만족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시장환경에 대한 활발한 탐

색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모든 경영활동과 문제를 고객의 시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단지 현재 눈에 보이는 고객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고객도 고려하고자 노력하는 문화이다. 예를 들어 Sony사에서 워크맨 개발이래 현재의 고객수요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 뿐 아니라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시장 추세 예측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 혁신조직 문화의 특징은 행동이 중시되는 문화라는 것이다. 지나친 엄밀함보다는 빠른 실행을 중시하며 과정의 합리성보다는 결과를 우선하고 적시성을 대단히 중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Hewlett Packard나 General Electric사는 신제품 개발시 사양동결 (Spec Freezing) 체도를 통해 웬만한 신 기술이 아니면 본래의 제품사양을 바꾸지 않고 개발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조직문화는 그 자체의 관성이 대단해서 여간한 노력으로는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외부 경쟁이나 압력에 의해 할 수 없이 바뀌는 지 아니면 외부 환경 변화가 심각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바꿀 것인지는 그 조직의 리더와 구성원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즉 이러한 창의적 혁신적 조직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비전과 용기 있는 리더와 구성원이 있을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조직 문화는 변화할 것이다. ◆

전자상거래 코너



인터넷상의 비과세와 비관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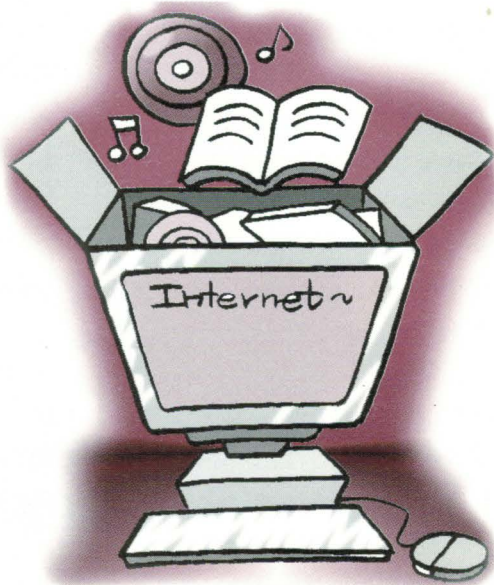
이재규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미국의 Clinton 대통령과 Gore 부통령이 "A Framework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란 논문을 인터넷에 띄웠다. 누가 써 준 논문일 것 같긴 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이 공저로 논문을 발표한 것이 이채롭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인터넷상의 거래에 대해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사이버공간을 비과세, 비관세 공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바빠졌고, 전자상거래 사무국을 범부처적으로 구성하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유럽과 같이 소비자 지역 중심으로 10%의 부가세를 자진 납부케 하겠다고 한다. 미리 대비를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늦게나마 대응책 마련에 진지한 모습을 보니 다행스럽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호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인터넷상의 거래"의 정의였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책, 음반이나 TV도 다 비과세, 비관세란 뜻인지 혼란스러워 했다. 그러나 적어도 Internet Round One에서는 "인터넷상의 주문"을 "인터넷상의 거래"와 동일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터넷상 거래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배달까지

도 인터넷 상에서 완결되는 소프트웨어, 음악, 도서, 뉴스정보, 금융서비스 등의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로 제한하였다. 물리적으로 유형한 CD나 도서를 인터넷 상으로 주문했다고 해서 통관 절차상 특혜를 베푸는 것은 과세형평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실제 집행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상의 거래가 비과세화되면, 예를 들어 음악이 CD에 저장되어 판매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청취되고, 인쇄된 책의 판매보다는 전자적 맞춤형 책을 인터넷 상으로 전송해 개인용 컴퓨터에서 인쇄, 제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컴퓨터에 고급 음향기기가 부착할 필요성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바야흐로 정보상품의 유통구조에 대변혁이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도 Clinton과 Gore의 방침이 환영을 받는 것만은 아니다. 각 정부는 稅收의 감소를 염려하고 있는데, 주로 간접세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직접세의 증대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 세제상의 개편도 뒤따라야 하니, 실로 큰 변혁이라 하겠다. 세제를 놓고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정될 지 면밀히 관찰해 보아야 할 일이다. ◆



벤처기업과 기술창업과정의 세 가지 요소

배중태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벤처기업 설립 붐 : 소리 없는 혁명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산업혁명, 정보혁명에 이은 또 하나의 조그만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이 혁명은 소리 없이 진행되지만, 그 영향은 천둥처럼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 설립의 꿈, 21세기의 홀렛과 패커드, 빌 게이츠, 손정의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창업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많은 벤처기업들이 새로 만들어졌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으로 무장한 젊고 유능한 벤처기업가들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도 소리 없는 혁명이 태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은 창업자나 기존 기업이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적인 조직의 관리자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 자원의 범위 내에서만 기회를 추구하고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기업가정신을 가진 조직은 먼저 기회를 파악한 후, 이러한 기회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때에 네트워킹에 의한 외부

조달(outsourcing)에 의해 확보하고 활용한다.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제약을 받지 않고 기회와 파악 및 추구에 몰두한다. ①기회의 추구하고 ②통제 가능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자원활용. 이 두 가지 핵심개념은 기업가정신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된다.

기술창업과정

벤처기업의 기술창업과정이나 대기업의 모험사업 추진과정에는 3가지 핵심요소, 즉 창업자/창업팀, 기회,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창업자와 좋은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벤처기업의 성공은 창업자나 창업팀의 능력에 따라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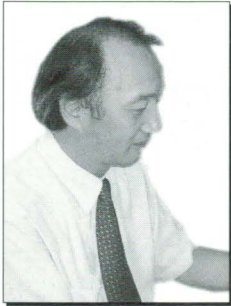
예비창업자들은 미리 배우고 준비하면서 창업의 기회가 열리는 순간의 타이밍을 잘 포착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술혁신능력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능력도 필요하다.

둘째, 적절한 사업기회의 포착이 중요하다. 창업자가 기술창업과정의 주체라면 기회는 창업자가 추구하는 객체가 된다. 기회는 미리 준비하고 능력

있는 창업자에게만 포착되고, 이러한 기회를 미리 포착한 창업자는 남보다 먼저 이 기회를 추구한다. 기회는 기술적 타당성(아이디어) 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수요가 있어야 한다. 즉 기술성과 시장성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기회가 된다. 좋은 기회는 매력적(rewarding, attractive)이고, 실패하더라도 치명적이지 않아야(forgiving)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enduring)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창업자가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다. 창업과정에는 사람, 자금, 공장/설비, 사업계획 등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원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다단계에 걸쳐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벤처캐피탈 등 자금조달과 인력확보가 가장 큰 과제가 된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문은 주로 이 영역에 해당한다.

벤처기업가는 오직 기회를 추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준비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다. 21세기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이러한 젊은이들을 벤처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



금융공학의 이해

김인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금융공학은 Financial Engineering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재무공학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금융이나 재무는 생소한 용어가 아니라서 일반인들이 나름대로의 이해를 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은 금융(또는 재무)이 공학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데 있는 것 같다.

간단히 말해서 기업이나 개인이 자금을 조달 또는 공급하는 것을 금융이라 한다. 자금 조달 또는 공급은 금융시장에서 금융수단(Financial Instruments)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예금통장이 발부된다. 이때 예금통장이라는 금융수단을 통해서 그 개인은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한 것이 된다. 이렇게 은행에 공급된 자금은 궁극적으로 기업이나 다른 개인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수단을 통해서 제공되게 된다. 과거에는 주식과 채권 같은 소수의 단순한 형태의 금융수단이 자금의 조달과 공급에 이용되었으나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선물(Futures)과 옵션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의 금융수단

이 개발되었으며 새로운 금융수단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이라 불리는 새로운 금융수단은 기존의 금융수단들을 결합한 것일 수도 있고 기존의 금융수단을 변형한 것일 수도 있으며 전혀 새로운 것일 수도 있다. 새로운 금융수단의 개발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비유할 수 있으며 공학적 개념과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재무학자는 금융공학을 핵공학에 비유하기도 한다. 첫째, 분석방법이 유사하다. 핵공학에서 쓰이는 편미분방정식이 금융공학에서도 활용된다. 미국의 금융기관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을 분석할 때 나타나는 편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물리학자나 수학자를 고용하기도 한다. 둘째,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핵공학의 평화적 이용은 인류에게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공학은 금융기관, 기업 또는 개인들에게 다양하고 효율적 자금 조달, 위험관리 및 재테크 등의 유익한 활용 수단을 제공한다. 셋째, 잘못 활용하면 무서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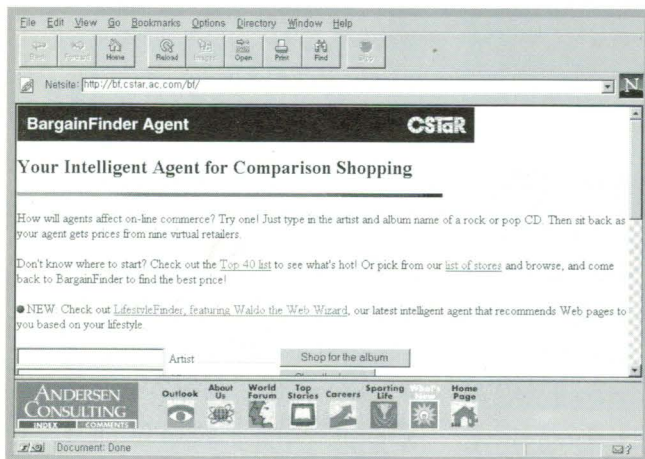
를 가져올 수 있다. 핵공학을 이용하여 개발한 핵무기가 잘못 쓰일 경우 인류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 파생금융상품을 잘못 활용하면 영국의 금융기관인 베어링사나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경우와 같이 대형 기관을 파산시킬 수 있으며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요즘 고객만족 또는 고객감동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 취향이 다양한 다수의 개인을 고객으로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제 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금융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고객들(기업 또는 개인)의 경제 여건이나 취향에 맞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공학은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철저한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도구라고 볼 수 있다.◆

박승룡 기자

대표적인 인터넷 비교 쇼핑 에이전트 바겐 파인더

주소 : <http://bf.cstar.ac.com/bf/>



인터넷에는 비슷한 성격의 상품들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다 간편하게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도와 주는 사이트들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비교 쇼핑 에이전트라고 하며,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첫째 사용자

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 또는 취급하는 웹 사이트를 찾아 갈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찾은 사이트로부터 필요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얻어 올 수 있는 통신능력이 있어야 하며, 셋째 얻어 온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앤더슨 컨설팅에서 개발한 바겐 파인더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춘 대표적인 비교 쇼핑 에이전트이다. 바겐 파인더가 다루고 있는 비교 쇼핑 대상 상품은 콤팩트 디스크이고, 제공되는 정보는 콤팩트 디스크 판매 사이트와 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다. 사용자는 앉은 자리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디스크를 파는 가게와 가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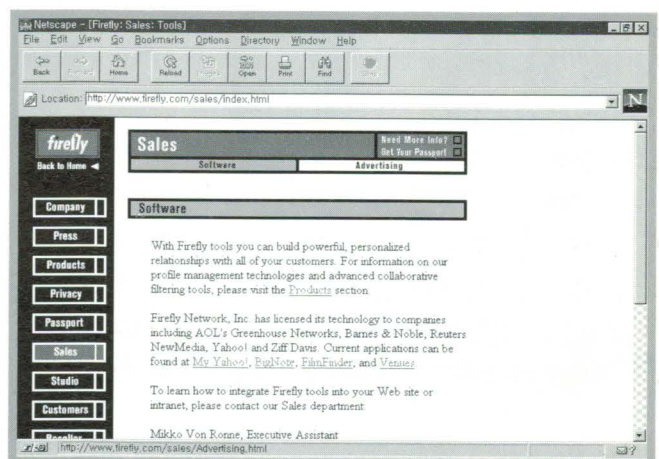
이와 같은 서비스가 여러 분야로 확대된다면 말할 나위 없이 편리한 사이버 쇼핑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품에 여러가지 부가적인 정보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엔 비교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상품가격이 비교적 비싼 사이트들은 자신의 가격을 최대한 숨기려 한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종합 오락용 에이전트 파이어 플라이

주소 : <http://www.firefly.com/>

바겐 파인더가 비교의 기준으로 가격 외에는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 파이어 플라이는 상품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다. 파이어 플라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사용자가 원하는 음악이나 영화가 무엇인지를 학습에 의해 찾아 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엄격히 말해 비교 쇼핑용 에이전트라고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기호를 스스로 파악해서 그 기호에 기초한 결과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교 쇼핑용 에이전트가 추후에 가져야 할 기능을 보여 주고 있다.

현재 파이어 플라이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Guest로 접속하면 관련된 여러 뉴스 및 소개말들을 읽을 수 있다.



허진호 사장의 (주)아이네트를 찾아서 ...

임형준 · 김창연 기자

동문기업 탐방 코너 취재차 강남 구 역삼동에 위치한 아이네트 빌딩을 방문했다.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기업처럼 매우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벤처기업답게 직원들의 표정이나 옷차림 등에서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주)아이네트(대표이사 許眞浩)는 인터넷 상용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994년 8월에 설립된 인터넷 전문 기업이다. 아이네트는 1983년, 당시 인터넷이 연구망으로 국내에 처음 상륙한 때부터 인터넷을 구축하고 활용한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기술력과 인터넷 대중화의 꿈을 가지고 출발한 하이테크 벤처기업으로서 월드와이드웹(WWW)을 국내에 처음 소개했고 현재까지 개인 및 기관 단위로 전세계 170여개국에 걸친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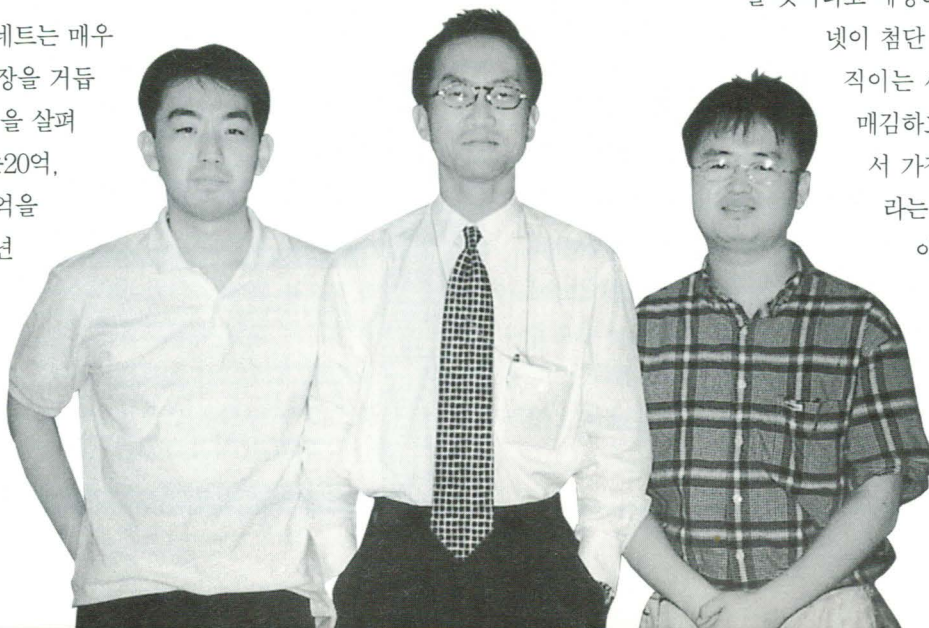
을 포함한 인트라넷 솔루션으로 20%, 접속 서비스 관련 장비, 교육 등의 기타 매출이 15%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아이네트가 자랑하는 전문 인력이 아닌가 싶다. 벤처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우수한 인력이다. KAIST 동문(박사, 전산과 11회)인 허사장은 아이네트의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들고 있다.

아이네트는 기존의 대기업이나 대규모 통신회사와 달리 인터넷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출발했고 사용자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컴퓨터 통신 기술을 즉시 도입, 반영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에만 전념하고 있다. 아이네트는 현재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아태 백본구축, 국내 최대규모의 고속회선 확보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인터넷 부가서비스인 인터넷 로밍, 팩스, 전화서비스 등을 국제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아이월드서비스에서는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웹광고 등을 선보이고, 통신 서비스의 수출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본격 엔터테인먼트 공간, "I-Land" 서비스로 고객들이 체감하는 실체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네트가 매우 순조롭게 성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성공 여부를 따지기엔 이르다. 허 사장은 앞으로 최소한 2년 후에나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첨단 통신망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이네트가 2년 뒤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 ◆

그 동안 아이네트는 매우 빠른 속도의 성장을 거듭해 왔다. 매출액을 살펴보면 95년도에는 20억, 96년도에는 80억을 달성하였고 97년도에는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매출 구성은 접속 서비스가 65%, 웹솔루션



테크노경영대학원 2호관 보수공사 착공

원격강의, 전자도서관 등 첨단시설 확충

테크노경영대학원 학생들은 98년 봄학기부터 원격강의실, 전자도서관 등 첨단시설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교육받게 된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98년초까지 세계수준의 경영대학원에 걸맞는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서울캠퍼스 2호관에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설계는 간삼중합건축에서, 시공은 선경건설(주)에서 맡아 추진중에 있으며, 7월 15일부터 2호관 내부 철거작업에 착수하였다.

서울캠퍼스 2호관은 지난 72년 완공되어 KAIST가 91년 대전으로 이전할 때까지 이학동으로 사용했던 건물로,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출연금 및 SK Telecom이 기부한 산학협동출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약 5천평에 달하는 보수공사가 끝난 후 2호관에 설치되는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1층 : 출입자들의 동선을 2층 및 Atrium으로 유도하기 위한 주 계단이 중앙에 설치되고, 남북 양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개인별 port가 제공되는 2개의 계단강의실, 서울캠퍼스의 모든 Network장비 및 A/V장비실과 기기장비 대여실이 운영되는 전산센터, 학생들의 체력단련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마루방이 설치된다.

2층 : 중앙에는 Main lobby, MBA과정 학과사무실 및 학생 mail room, 5-6명이 토의할 수 있는 5개의 group study room이 설치되고, 남북쪽에는 교수연구실 및 경영공학 학생연구실이 배치되며, 남쪽의 1/2은 테크노경영대학원의 내부 연구센터들을 위한 open 공간이 제공된다.

3층 : 남북쪽은 2층과 동일한 시설 및 경영공학전공의 학과 사무실과 교수회의실



이 배치되며, 중앙에는 소형 강의실 및 세미나실, real time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실습할 수 있는 trading/business game room과 첨단시설인 원격영상강의실 및 영상강의용 studio가 설치된다.

4층 : 남북쪽은 2층과 동일한 시설이 배치되며, 중앙에는 전자도서관이 설치된다. 이 도서관은 재래식 도서관과는 달리 교수 및 학생들이 연구실등에서 직접 접속하여 전자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 각종 자료를 열람하거나 입수할 수 있게 되며, Cyber Hall은 24시간 개방되어 Internet/Intranet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미디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5층 : 기존 4층위에 새로이 증축되는 공간으로서 북쪽에는 MBA과정 학생의 연구실이 배치되고, 남쪽에는 SK Telecom의 연구센터가 배치되어 테크노경영대학원과 다양한 산학협동연구활동을 수행할 예정



이며, 남북쪽 open terrace에서는 숲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에는 다양한 회의 및 교육연구활동을 위한 중소형 Convention Hall을 설치하여 원내행사는 물론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과학기술계 관련 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Atrium : 2층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2호관 및 7호관 사이에 대형 유리돔형으로 신축되며 학생들의 주요 휴게공간으로서 hanging beam projector 와 screen, 간이 snack bar, multimedia 공연 stage 등이 설치되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서의 다용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을 다녀와서

남홍용 금융공학 MBA



이번이 나

로서는 두 번째 미국 방문이었다. 처음 공항에 내려서 야자수를 봤을 때 묘한 이질감을 가졌던 그 도시, LA에 다시 온 것이었다. Irvine은 LA에서 남쪽으로 1시간 가량 걸리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가진 전형적인 계획 도시이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옹기종기 살았지만, 우리 12명 Irvine 팀은 생김새가 다르듯이 제각각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도 달랐던 것 같다.

처음에는 Listening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으나 TV를 꾸준히 시청하고, 배움지 않으려는 Survival English를 구사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졌다. 수업난이도 면에서만 본다면 KAIST 수준보다 높아 보이지는 않았으나, 문제를 복잡하게 다루지 않고 몇 가지 쉬운 방법을 이용, 계속해서 실제 자료를 가지고 응용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기업에 진출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 대학도 우리 KAIST 못지 않게 공부 시키고 있으며, 그 곳 교수님들의 강의 준비 및 과제물에 대한 Feed-Back이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완벽하였다. UCI의 경영대학원은 지은 지 얼마 안된 최신 건물이라 모든 좌석에서 LAN 접속이 가능하여 수업시간 중 직접 Website에 들어가 최신 Issue를 다루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

수님들이 자신의 Homepage에 강의내용, 주요 논문, 관련 Website, 주요 자료 등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On-line & Real-time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질의도 E-mail을 통해 수시로 주고받고, 강의내용의 사전배포 등을 통해 수업시간에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수강인원도 엄격히 제한하였는데, 어느 과목의 경우, 학생수가 30명 정도를 넘으니, 수강신청 안하고 들어온 사람은 나가라고 하고, 그래도 많으니, 1년차 학생은 내년에 들으라고 하면서 내보내는 등 학생 수를 교수가 감당할 만큼만으로 한정하는 것을 보았다.

미국 대학의 수업 방식이 대화, 토론식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능숙하지 못한 영어 구사 능력으로 인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었다. 그러나 Presentation이나 Report 등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

는 미국 학생들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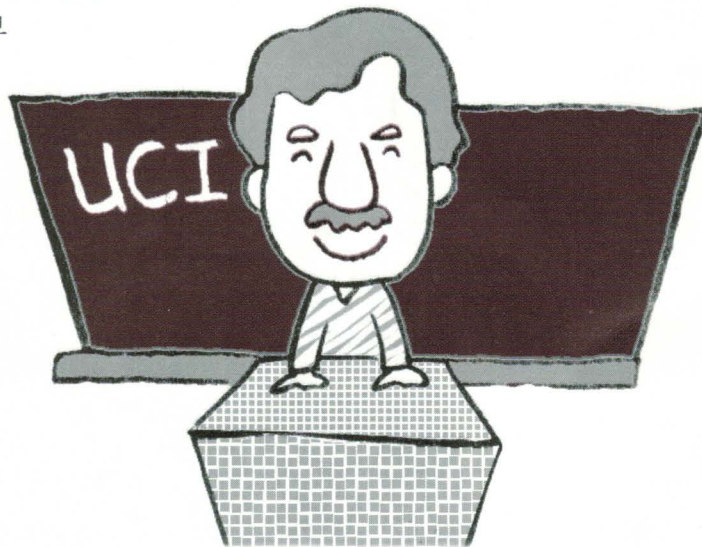
다 나온 점수

를 받는 등 그

들보다 두서

너 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자평한다. 한편 학과 수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여타 과외활동을 그다지 활발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아쉬운 점의 하나라 하겠다.

UCI는 이와 같은 대외협력 프로그램이 처음이라 행정적인 면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고, 특히 미국 현지기업 방문 등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Field Tour 같은 것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으나, 관련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체로 무난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을 이해하고, 배우는 좋은 기회였고, 미국 대학의 강점은 인터넷을 통한 풍부한 자료의 활용과 무궁무진한 정보의 이용에 있다고 생각한다. 월 15불 정도만 내면 시내통화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로 인해 집에서든 마음껏 정보의 바다를 향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Infrastructure가 부럽다.◆



이승규교수의 생산경영 연구실

이수열 경영공학 박사과정

우리 연구실의 정식명칭은 생산경영연구실, 영어로는 Operations Strategy and Systems (OSS) Lab.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운영전략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분석을 주요 연구과제로 하고 있지요. 주요 연구분야로 생산전략, 품질환경경영(TQEM),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통신서비스의 운영전략 등이 있습니다.

현재 생산경영연구실은 박사과정의 최성철(삼보컴퓨터, 통신서비스 경영전략), 이수열(환경경영전략) 두 사람과 석사과정의 박상범(한화에너지, 생산전략 및 성과측정)이 주둔하고 있는 가건물 연구실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생산기술전략 연구팀(삼성전자 강진구, 권영찬, 김동천, 삼성전관 이상록, 이중기), 성과측정시스템 연



구팀(유공 백승우, LG전자 최정혁), 생산정보기술 연구팀(삼성전자 최철주, 한국중공업 정진환) 등 소속회사의 주요 현안 이슈를 학위논문 주제로 잡아 연구하고 있는 MBA학생들은 1호관 4층 연구실에 모여 함께 생활하고 있죠.

현재 SK Telecom의 통신서비스 경영전략 프로젝트와 LG 전자의 전략적 성과 측정 및 평가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도 활발

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적 열정이 불을 뿜으면서 격의 없이 이어지는 세미나 시간의 토론 뿐 아니라, 가족과 같은 친목이 또한 저희 생산경영연구실의 자랑거리입니다. 가족을 동반하는 연구실 야유회를 비롯하여, 냉혹한 Professional의 세계를 맞보게 하는 MT, 자세와 점수가 반

비례하는 심야불링대회 등 연구활동의 촉진을 위한 단체활동도 자주 갖는 편입니다. 자율적이지만 원칙을 지키고, 창의적이고 열정이 넘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팀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저희 생산경영연구실은 생산, 운영, 환경경영의 학문적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만학의 꿈을 이룬 1997년

KAIST Techno-MBA과정을 마치며 ...

김수현 삼성물산 화공설비팀 과장

대전으로 집을 옮긴 후
집사람과 정신없이 집을
정리한 나는 쉽게 잠을 이
룰 수가 없었다. 앞으로 겪
어야 할 2년간의 연수과정
을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
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늘 써오던 개인관
리 프로그램을 열어 메모
를 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일어 등 어학을 게을리 하
지 않을 것, 둘째는 체력을
보강할 것, 셋째는 신앙생
활을 중요시하자는 것이었다. 이 세 가
지를 정리하고 나니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
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남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인 만큼 결심도
야무지게 했던 나의 MBA과정은 이렇게
시작됐다.

지난 2년의 과정이 모두 기억에 남는 것
이겠지만, 그 중 새벽 2시까지 밤을 지새우
던 96년 2월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본다.

대전 KAIST 2호관, 새벽 2시경 연구실
에서는 총혈된 눈으로 채 못다 정리한 자
료들을 다듬으며 컴퓨터와 씨름을 하는 다
섯 명의 늙은 학생들이 있었다. 김영배교
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S사 D사업부의 조
직진단 결과에 대한 발표자료를 만들고 있
었던 것이다. 김교수님의 특유의 교수법
(학생들에게 상세한 사전 지시를 하기보다
는 극한까지 학생들이 자신이 노력하여 해결
책을 찾도록 하는)으로 해서 그 동안 엄청



늘 한 걸음 앞서서
새로운 문제를 지적하고 요구하시는
김교수님의 지시사항들을
수행하다 보니 거의 탈진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그 때 다섯 명의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했다.
“우리 노래 좀 해 봅시다.”
“그래요, 우리 같이 노래해 봅시다!”
갑자기 연구실 안에는
피곤의 기미가 사라지고
나지막한 소리로 노래가 퍼졌다.

난 시행착오를 겪어오던
우리 다섯 명은 고생이 말
이 아니었다. 처음 해보는
설문서 고안과 설문 실시,
그리고 방대한 양의 통계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등
의 모든 일들에 많은 시간
이 소모되었다. 더구나 늘
한 걸음 앞서서 새로운 문
제를 지적하고 요구하시
는 김교수님의 지시사항
들을 수행하다 보니 거의
탈진상태에 있었다. 그런

데 그 때 다섯 명의 누군가가 이런 제안을
했다.

“우리 노래 좀 해 봅시다.”

“그래요, 우리 같이 노래해 봅시다!”

갑자기 연구실 안에는 피곤의 기미가 사
라지고 나지막한 소리로 노래가 퍼졌다. 한
사람의 목소리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더
해져 절묘한 화음이 이루어진 순간. 지금껏
알지 못했던 다섯 명의 새로운 재능이 드러
나는 순간이었다. 한 곡 또 한 곡 흘러간 유
행가에서 찬송가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 다
섯 명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일체감과 충만
감으로 피곤이 싹 가시는 것을 느꼈다.

힘들고 고된 나날이었지만 서로에게 용
기를 심어준 동료들과 몸을 안 아끼시며 우
리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있었기에 지난
2년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연구실에서 함
께 목청을 모아 노래 불렀던 동료들, 그들
은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

KAIST라는 작은 사회

안성아 경영공학 박사과정

중학교 1학년 때 홍콩 KAIST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이 우리 반을 끝으로 교편을 떠나 KAIST 전산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셨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안내로 KAIST 도서관과 연구실들을 구경하고 기숙사를 거쳐 그림같은 다람쥐길을 걸어 내려가면서 (당시에는 KIST와 캠퍼스를 공유하던 때라 꽤 넓었음) 나는 하버드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소설의 장면들을 떠올렸었다. 그 때 선생님이 얼마나 부럽고 존경스러웠는지.

나도 KAIST의 공부벌레가 되고 싶었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명강의를 듣고 엄청난 양의 원서들을 읽어내고 동료들과의 토론에 밤이 가는 줄도 모르면서 내 젊음을 불사르고 싶었다. KAIST는 그런 시간들을 내게 허락했다. 주말이 시작하기가 무섭게 다음 주 과제들을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야 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깜짝 퀴즈 때문에 매주 스터디모임을 가지기도 했고, 기말보고서 마감 날짜가 다가올 때면 늘 연구실에서 새벽을 맞이해야 했으니까. 그런가 하면 야식으로 먹은 얼큰한 감자탕이 힘이 되기도 하고, 마감시간 직전 컴퓨터가 다운되어 눈물젖은 보고서를 다시 쓰기도 하고, 맑은 가을 하늘을 참을 수 없어 마감 전날 계룡산 가는 버스에 올라타기도 하였던(물론 그 다음 날은 엄청 깨졌던) 그런 낭만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KAIST가 활기와 낭만만을 채워주는 울타리는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첨단기술을 배우는 과학도로서의 자부심도 잠깐이고 쌓인 일들로 서로를 돌아볼 여유 없음과 그속에서 고독을 이기기 위한 키보드 소리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드는 우리 안의 단절이 군데군데에서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 간의 부딪힘과 그로 인한 상처들. 나도 공동작업을 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와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마음이 닫혔던 아픈 기억이 있고, 그때마다 KAIST를 벗어나고픈 충동이 일었었다. 마치 이 곳을 벗어나면 다시는 그런 일로 마음을 앓지 않을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나가게 될 사회의 모습이 그러하고, KAIST 역시 투영된 작은 사회의 모습에 불과함을 깨닫는다.

역사속에는 3년 동안의 미션을 위해 30

년을 준비하셨던 분이 계셨다. 나도 이제 20대 중반. 수년 내에 KAIST를 떠나게 된다면 정말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어떤 준비보다도 나 자신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사회의 한 파트에서 관리자로서 또는 동료로 있을 때, 일 속에서의 성취감도 잠시, 동료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들이 어김없이 가장 힘든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이다.

마음을 열라. 대화를 하라. 당신의 이런 점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이런 언행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서운하게 했었는지에 대한 나의 감정을 힘들게 내보이라! 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강의를 접해왔다. 그러나 이제 힘들게 얻은 또 하나의 결론은 이 모든 노력이 서로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의 허다한 허물들을 덮는다고 하였다. 사랑의 훈련을 하자. 내 옆에 동료의 허물을 용납하고 나의 허물을 용서받으면서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연습을 현재 우리의 삶이 있는 연구실에서 시작하자. 그렇게 준비된 KAIST 졸업생들, 그들이라면 KAIST에서 배운 공부와 기술들을 더욱 이웃을 위해 선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럴 때에 우리 사회는 더없이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

AIM 총동창회 발족(4월 17일)

최고정보경영자과정(AIM)은 4월 16일(수) 서울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총동창회를 발족하고 초대회장에 신평재(1기) 교보증권 회장을 선출했다. 이규성 전 재무장관을 초청 「경제선진화를 위한 우리의 준비」를 주제로 조찬 세미나도 가진 이날 모임에서 부회장에는 김진재(2기) 국회의원, 신복영(3기) 서울은행장, 조해형(4기) 나라기획 회장, 손세일(5기) 국회 통상산업상임위원장이, 고문엔 윤덕용 KAIST원장, 간사엔 변종경 삼성비서실 이사(1기)가 선임됐다. 이 자리에는 안병훈 KAIST 테크노경영 대학원장, 조갑주 신송식품 회장(6기 회장) 및 김성희 AIM 책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게임하며 노는 사장들(중앙일보 5월 17일)

“컴퓨터 자판을 더듬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사장, 회장들이 지금 컴퓨터 통신으로 편지까지 보낼 정도가 되었다. 이런 변화의 1등 공신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최고정보경영자과정(AIM)에서 배운 컴퓨터 실습과정이다. 1994년 9월 산업계의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AIM과정에서 올해에는 MIT의 Sloan School에서 개발된 경영시뮬레이션 게임을 도입하여 팀별로 최고의 경영성과를 목표로 치열한 경쟁을 진행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17일자 중앙일보 ‘사이버엔 나이가 없다’ 기사 참조)

KAIST-AIM을 추천합니다

AIM 6기 강창희(국회의원, 자민련 사무총장)

홍릉에 가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홍릉에 가시면 저와 마찬가지로 교수님과 동기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따뜻한 정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세계는 지금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화’, ‘지식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앞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거나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원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일류의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정보화’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로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AIM 과정에 지원하실 분들께 “준비되지 않은 결과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AIM 6기 수료식

최고정보경영자과정 6기 수료식이 8월 20일 KAIST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있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40명 전원이 수료했으며 22명이 16주 48강좌에 모두 참석하여 개근상을 수상했다. 최우수 논문상은 대한투자신탁의 김종환 사장과 BC카드의 김원태 상무가, 우수논문상은 한국전력의 한국중 처장, 풀무원의 서석원 전무, 대림엔지니어링의 임계환 이사가, 우수실습상은 외환리스금융의 유노상 사장, 수출입은행의 이선호 전무, 교보투자신탁운용의 윤희욱 사장이 수상하였다.

1998학년도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 경영대학원 MBA과정(경영학 석사과정) 입학 전형 안내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정보화·세계화의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술을 아는 경영인, 경영을 아는 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MBA과정(경영학 석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모집인원	160명 내외	
모집전공	기술경영전공(Techno-Management Program) 경영정보전공(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Program) 통신경영/정책전공(Telecommunications Management and Policy Program) 금융공학전공(Financial Engineering Program) 환경경영/정책전공(Green Management and Policy Program)	
모집대상	일반장학생 : 교육경비를 산업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이 부담하는 학생으로 해당기관의 입학추천을 받은 자	
전형방법	1차 전형 : 서류심사(TOEFL 포함) ※지원자 전원에게 대하여 TOEFL을 실시함 2차 전형 : 면접시험	
입시일정	일정구분	일정
	원서교부 원서접수 TOEFL TEST 제1차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97.11.17(월)~11.22(토) '97.12. 1(월)~12. 5(금) '97.12. 9(화) '97.12.23(화) '97.12.26(금)~12.31(수) '98. 1. 9(금)
기타	수학기간은 전일제(Full-time)로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논문연구를 소속기관과 관련된 주제를 갖고 수행할 경우 입학 후 16개월 후에는 소속기관에 복귀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Internet Homepage 및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ternet Homepage : http://kgsm.kaist.ac.kr 교학실 : (02)958-3211~4, (02)958-3220(FAX) e-mail : smc@cais.kaist.ac.kr , ibcheol@cais.kaist.ac.kr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안내

'Frontier'는 보다 많은 독자를 만나
기를 원합니다. 받고 싶거나 드리고 싶은
분의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TEL 02)958-3246

FAX 02)958-3010

URL <http://kgsm.kaist.ac.kr>